

# 기업 유치 · 일반산업단지 조성 · 쾌적한 근로환경 만들기 '앞장'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우며, 기업애로해소, 기업동향 파악 및 관리, 기업지원정책 홍보 강화,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남원형 화장품 산업 단지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활기차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에 남원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 ▲근로자가 행복한 일터 조성 구축

남원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거 기반시설 및 다양한 문화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주택과 광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행복주택은 노암3단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3,752㎡(1,137평)에 120세대로, 신대근로자 85세대, 청년 18세대, 고령자 12세대, 신혼부부 및 한부모 5세대가 입주대상이다. 또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1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치·2농공단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주거·복지·편의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청년 유입 기능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코즈메틱 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조감도

## ▲화장품산업 단지 구축

남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에 나서며, 생명의 보고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자연식물을 활용한 '화장품원료산업'을 기반으로 남원만의 차별화된 화장품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원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 조례를 제정, 인프라조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남원의 화장품 산업을 이끌어 가는 출연기관인 (재)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노암산업단지에는 화장품집적화단지를 조성해 화장품업체를 유치 분양하고, 화장품제조 공정에 필요한 표준화된 생산시설인 우수화장품 제조시설(CMP)과 화장품 원료를 건조, 냉동, 가공 할 수 있는 천연물화장품원료시설(CMP)을 구축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산업인프라와 기술개발역량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기업의 사업화지원, 기술개발과 품질관리지원, 브랜드 플랫폼지원 등을 시작하였고, 1,400여종의 자생식물 중 969여종을 라이브러리아 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해 관리하고 있고 이중 55종을 미백, 주름개선, 보습, 항산화, 항균 실험을 거쳐 화장품소재로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원료화하고 있다.

## ▲화장품 지식센터 구축

남원시는 국비를 확보해 288억의 규모로 전국 최초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36개의 제조공장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16개 화장품 입주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12월 현재 15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해 화장품기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 용기업체, 원료업체 등 관련 업종 입주로 화장품산업이 집적화될 뿐 아니라 기업들간의 플랫폼이 형성되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앞으로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원료재배, 원료제조 등 원료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영남과 호남 접점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 기술, 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화장품산업에 대응되는 남부권의 화장품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지난해 준공된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올해 9개 기업체(부지 15만3,841㎡, 투자금액 732억원, 신규고용 375명)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성과를 내고 있다. 2020년도 3개 기업(부지 6만7,868㎡, 투자금액 337억원, 신규고용 137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38%의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 산업 내 입주기업 늘어남에 따라 전국 최초 주거 기반시설 등 제공

## 화장품원료 기반 차별화된 화장품산업,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

## 화장품 지식센터 구축 · 일반산업단지 올해 기업 9곳 유치 · 근로 환경 개선

지지원제도가 한뼉하고 있다. 우선 남원일반산업단지에 부지면적 6,600㎡이상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20%에서 최대 50%의 분양기를 할인해 준다(정상분양가 32만5,000원/3.3㎡)

또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개시 이후 고용보조금과 물류비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홍보물 발송과 함께 타깃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다양한 투자지원제도 안내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강소기업 육성 위한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0억원을 지원, 업체당 최고 5억원을 1년 거치 2년 상환 또는 2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이자 차액 3%(벤처, 유망기업 4%)을 보전하고 있으며, 올 연말 기준 17개 기업이 43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근로 환경 개선

2020년부터 2023까지 시행되는 남원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은 정부합동공모사업으로 관내 입주기업과 근로자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암산업단지는 평일 통근버스 3대, 주말 1대, 광치산업단지는 통근버스 2대를 운영해 근로자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으며, 하루 약 180여명이 이용하면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 줌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기업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화 기업체 고용촉진 및 만성

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또한 인기가 많다. 올해 지원 규모는 18개 기업에 71실로 8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근로자가 거주 기간 및 관내기업(제조업체)에 3개월 이상 종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정착금은 근로자 1명 전 입 시 50만원, 2명 이상 전입 시 10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고 있어 신입사원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상시 고용인원 3인 이상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일 당시 대상기업에 취업해 6개월이상 근무한 만 15~34세 근로자(신청자격 대상)에게도 애환정려금을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편의 개선사업도 추진, 2021년말 기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LED조명시설 교체, 공장 바닥 도장공사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근로자 복지를 위한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등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월말 사업신청에 대해 공고할 예정이다.

##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남원시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지원의 일환으로 남원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750부를 제작해 전국 자치단체 및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했다. 이는 기업의 판로확대 및 매출 증대에 기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중소기업은 근로자수 관계없음)에 지원하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말 총 36개사에 6,900만원이 지급됐다.

##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남원시는 농공단지 1년 이상 입주업체에 최종 생산품의 물류비와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1년간 발생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와 폐수배출위탁처리비의 50%를 지원하며, 2020년부터 2021년말 총 18개 업체에 2억3천7백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행정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기업협안 해결에 나서며, 경기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밀착형 기업활동지원 전개를 위해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 담당 12명과 기업 간 1:1 매칭을 통해 306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인 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해 203건의 기업체 애로사항 및 규제 발굴·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로 근로여건 개선

산업(농공)단지의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산업(농공)단지 내 도로·배수로·사면 등 복구공사, 노후화된 가로등·도로·상수관로 정비공사, 예초작업·수목정비를 통한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농공)단지의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전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신설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운영 계약이 마무리되는 2022년 초부터는 다른 곳에 운송 처리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인근마을의 오·폐수처리를 산업단지 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폐수처리 부담을 줄이고 폐수처리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해 수월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역에 미칠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1109 일원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로서, 2013년부터 77만7,000㎡ 면적의 부지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기존 전통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통합하는 환경친화적 단지를 조성해 지리산권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타 시군과 광역권과의 산업연계 강화로 경제활성화 도모, 산업집적화를 통한 고용창출, 재정자립도 향상, 인구유입 및 주민소득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한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업 경쟁력강화 및 근로자 복지지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기업유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 관내 기업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제7회 무주 반딧불이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2월 16일(목)~17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

